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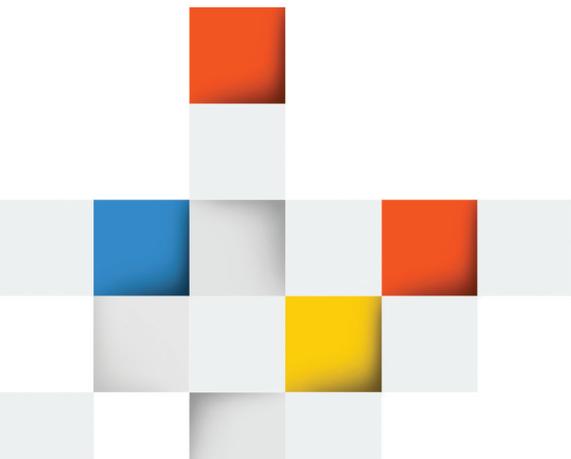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3
<http://sri.kostat.go.kr>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

노일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우리나라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연령집단 간 격차가 큰 편이다. 특히 중·고령층의 수준이 매우 낮았다. 정보취약계층 중에서도 고령층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 디지털 정보의 이용 및 활용 수준에서 지역 간 격차도 나타났는데, 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이,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수준이 낮았다. 지역 간 격차 역시 중·고령층의 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 연령집단 간의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는 주로 디지털 기기 및 기술 이용의 능력 차이로 인해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이해력 및 윤리적 태도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격차를 보였다.
- 개인 및 사회생활의 기본적 참여를 위해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반면, 경제, 직업, 사회생활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다.
-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터러시 연령집단 간 격차는 OECD 국가 평균보다도 큰 편이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 체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및 정보 기술은 개인, 조직,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의 활동 및 참여 양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세상을 읽고, 경험하는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해당 능력의 적용 범위와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 평가하며, 소통하고, 생성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인지적, 윤리적 능력의 총합으로, 일상생활과 사회 및 직업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핵심역량으로 이해된다(UNESCO, 2018).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의 조작 및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이의 변화와 해결을 추구하는 반성적이고 창조적인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길해지·노일경, 2019; Ferrari, 2014).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의미에 기반하여 디지털 정보에의 접근, 디지털 기기 이용 및 정보 활용 능력, 디지털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력 및 윤리적 태도 등에 관련된 가용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 등이다.



디지털 정보 접근 수준

인터넷은 현재 디지털 정보를 접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매체이며 이 점에서 인터넷 이용률은 디지털 정보의 접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이다.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는 전체 국민의 93%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데 2017년 90%를 상회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모바일기기 기반의 인터넷 이용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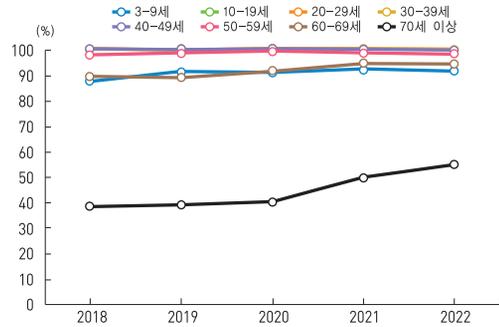
연령집단별로는 2022년 기준 대다수 연령층에서 99%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는 가운데, 60~69세는 94.0%(모바일 92.9%), 그리고 70세 이상은 54.7%(모바일 57.9%)의 이용률을 보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이 현저히 낮은 인터넷 정보 접근의 수준을 보였다(그림 IV-27).

다만, 2022년 7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8년 38.6%에서 16.1%p, 모바일로는 35.4%에서 22.5%p 상승한 수치로, 해당 연령층의 인터넷 정보 접근 정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0년 이후에 높아지는 기울기가 커진 것으로 보아 코로나19 상황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 정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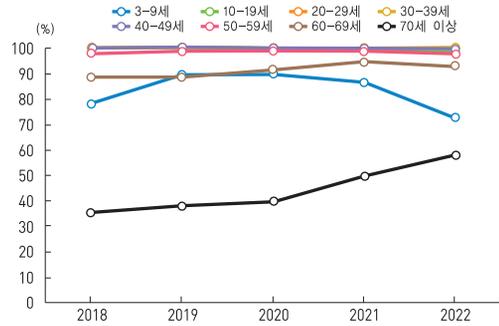
지역별로는 2022년 기준 광주, 울산, 제주, 대구, 부산에서 95.0% 이상의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는 가운데, 세종, 전남, 강원을 제외한 모

[그림 IV-27]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2018-2022

1) 인터넷 이용률



2)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주: 1) 인터넷 이용률은 만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한 자의 비율임.
 2)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만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내 모바일 인터넷(이동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자의 비율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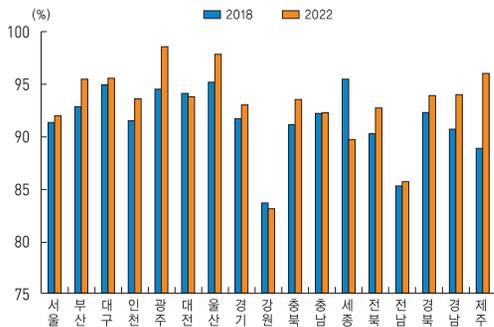
든 지역에서 90.0%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을 나타냈다. 반면, 강원과 전남은 5년 전 수치와 비교해 볼 때도 일관적으로 90% 이하의 이용률을 보여, 다른 지역과의 비교적 큰 격차를 보여준다(그림 IV-28-1).

그러나 모바일기기 기반의 인터넷 이용률은 2022년에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앞서 낮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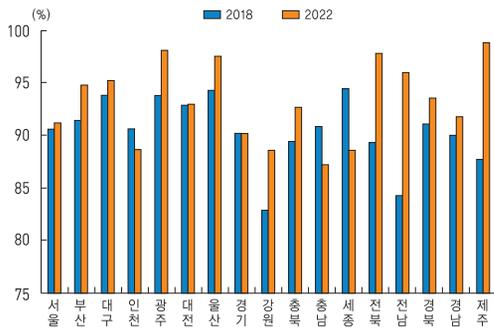
인터넷 이용률 수치를 보인 강원과 전남도 88.6%와 96.0%로 매우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다(그림 IV-28-2). 앞서도 언급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의 모바일기기 중심으로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향이 커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IV-28]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 2018, 2022

1) 인터넷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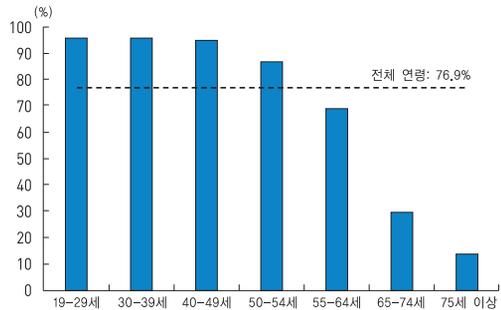
2)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주: 1) 인터넷 이용률은 만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한 자의 비율임.
 2)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만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내 모바일 인터넷(이동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자의 비율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 연도.

다음으로는 또 다른 디지털 정보 접근 매체로서 최근 들어 외식과 유통 점포, 교통과 문화시설 이용, 관공서와 병원 서비스 이용 등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키오스크의 이용률을 서울시민의 사례로 살펴보았다. 2021년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키오스크 이용률은 76.9%이며, 55세 이상은 평균 이하의 이용률을 나타냈다. 특히, 65~74세와 75세 이상은 각각 29.4%, 13.8%로 나타나, 키오스크가 타 기기에 비해서도 고령층의 접근 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디지털 기기임을 드러냈다(그림 IV-29).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디지털 매체 및 기기가 더 빠르고 더 자주 등장할수록 디지털정보 관련 역량의 격차도 급격히 커질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영향은 중·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IV-29] 서울시민의 연령별 키오스크 이용률, 2021



주: 1) 키오스크 이용률은 현재 서울 거주 가구 만 19세 이상 가구원 중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서울디지털재단, 「2021년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 2022.



디지털 정보화 수준 및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

우리나라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현황은 대표적으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디지털 정보의 접근, 이용, 활용의 수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보유 여부, 인터넷 상시 접속 여부 등 인프라 및 기기 보유 여부를 '접근'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의 이용 능력을 '역량'으로,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등의 양적, 질적 활용 정도를 '활용'으로 정의하여 자기 보고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역량, 활용의 종합을 '디지털 정보화'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각각의 하위집단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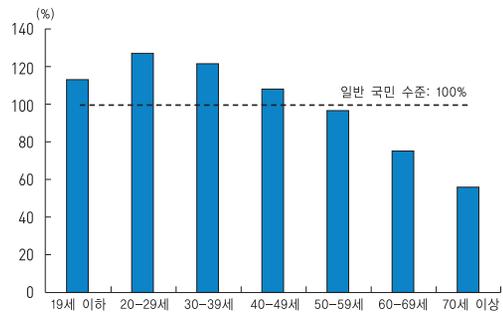
우선 연령집단별 디지털 정보화 현황을 보면, 40대 이하가 일반 국민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50대 이상은 반대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60대가 75.6%, 70대 이상이 55.6% 수준으로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그림 IV-30-1).

특히 [그림 IV-30-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격차는 '소프트웨어 설치·삭제', '인터넷 연결 및 파일 전송', '문서 및 자료 작성' 등의 컴퓨터 이용 능력과 '무선 네트워크 설정', '앱 설치·이용' 등의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 등을 포함하는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의 이용 능력인 '역량'의 수준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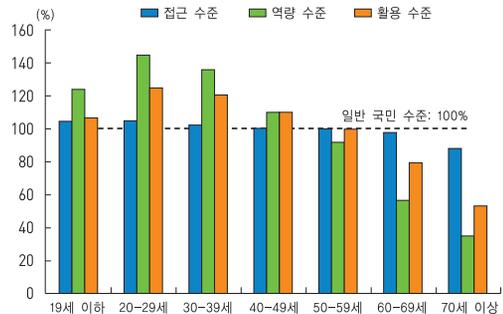
60~69세는 56.7%, 70대 이상은 34.6% 수준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의 이용 능력이 현저하게 낮았지만, 20~29세는 144.7%, 30~39세는 135.9%로 일반 국민 수준을 훨씬 상회하여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림 IV-30]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2022

1) 종합



2) 영역별



주: 1) 전국 만 7세 이상 가구원(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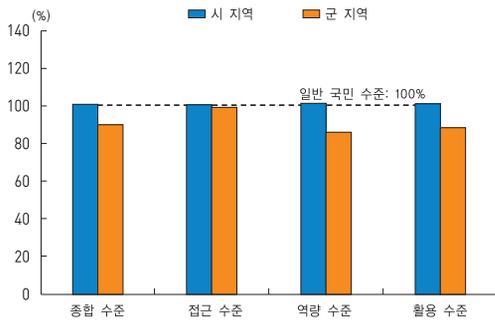
2) 디지털 정보화 종합 수준 및 각 하위 영역별 수준은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령집단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2.

지역별로는 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의 정보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인 '역량'과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 단위별 거주 연령층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연령 차이의 효과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31] 지역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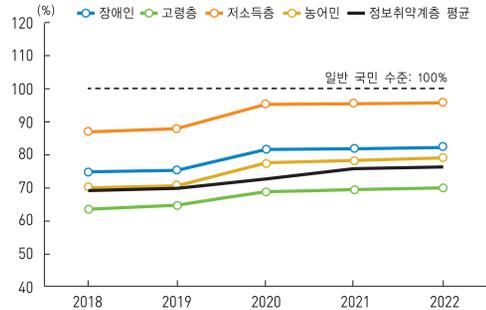


주: 1) 전국 만 7세 이상 가구원(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함.
 2) 디지털 정보화 종합 수준 및 각 하위 영역별 수준은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지역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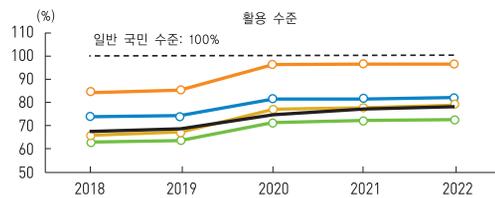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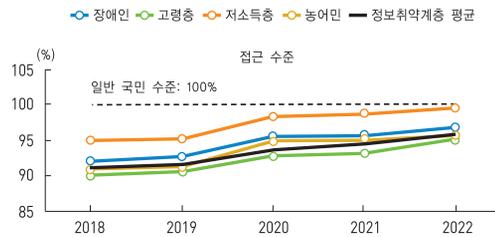
중·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저하에 대한 경향은 [그림 IV-32]에 제시된 정보취약계층 간의 비교를 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2022년 기준 일반 국민 평균 대비 정보취약계층, 즉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화 종합 수준은 76.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8%p, 2018년 기준으로는 7.3%p 상승한 수치이다. 계층별로는 고령층이 69.9%로 가장 낮으며, 농어민 78.9%, 장애인 82.2%, 저소득층 95.6%순으로 나타났다. 계층별 전년 대비 상승 폭은 고령층과 농어민이 각각 0.8%p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IV-32] 정보취약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2018-2022

1) 종합



2) 영역별



주: 1) '장애인'은 전국 만 7~69세 등록장애인, '고령층'은 전국 가구의 만 55세 이상 가구원, '저소득층'은 전국 만 7~74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어민'은 전국 농어가의 만 15세 이상 농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2) 디지털 정보화 종합 수준 및 각 하위 영역별 수준은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각 연도.



영역별 차이의 경향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2022년 기준 '역량'(64.5%)과 '활용'(78.0%)의 수준이 '접근'(96%)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량'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가르는 주요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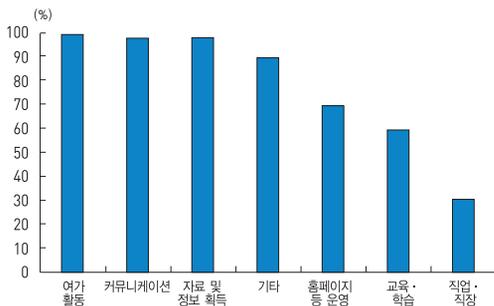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디지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을까? [그림 IV-33]의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주된 이용 목적을 살펴보면, 여가활동, 커뮤니케이션, 자료 및 정보획득 등은 98% 이상의 비율을 보인 반면, 인

터넷뱅킹,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여행 등 서비스 예약 및 이용 등은 89.1%, 그리고 교육과 학습, 직업 및 직장에서의 활용을 위해서는 각각 58.8%, 30.0%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정보 탐색, 그리고 소통과 여가 등 개인 일상생활 및 기본 사회생활 참여를 위해 디지털 정보를 주되게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학업, 경제, 직업 생활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IV-2〉 연령별 인터넷 이용목적, 2022

	여가 활동	커뮤니케이션	자료 및 정보 획득	홈페이지 등 운영	교육 학습	직업 직장	기타
3-9세	99.1	66.8	58.5	87.6	63.9	2.6	2.1
10-19세	100.0	100.0	100.0	48.9	100.0	11.3	88.2
20-29세	100.0	100.0	100.0	100.0	90.7	59.0	100.0
30-39세	100.0	100.0	100.0	100.0	83.1	56.8	100.0
40-49세	99.9	100.0	100.0	86.9	73.8	39.9	100.0
50-59세	99.8	99.9	100.0	53.2	28.7	22.9	97.5
60-69세	98.6	99.5	100.0	44.5	17.1	7.6	87.0
70세 이상	91.0	97.1	99.7	10.0	7.4	2.2	68.7

[그림 IV-33] 인터넷 이용목적, 2022



주 1) 통계치는 전국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내 1회 이상 이용) 중 해당 활동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여가'에는 TV, 라디오 시청, 음악 듣기, 동영상, 영화 보기, 게임 등의 활동이 포함됨.
 3) '기타'에는 인터넷뱅킹,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여행 등 서비스 예약 및 이용 등의 활동이 포함됨.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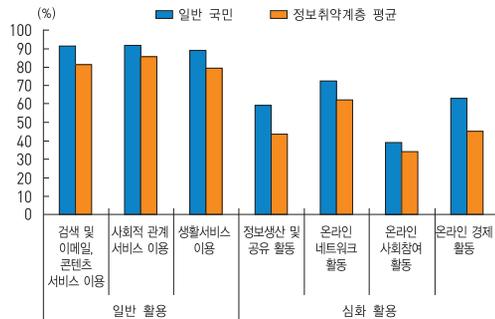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전국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내 1회 이상 이용) 중 해당 활동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여가'에는 TV, 라디오 시청, 음악 듣기, 동영상, 영화 보기, 게임 등의 활동이 포함됨.
 3) '기타'에는 인터넷뱅킹,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여행 등 서비스 예약 및 이용 등의 활동이 포함됨.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23.

이러한 경향은 연령집단별로 볼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교육 및 학습, 직업 및 직장, 홈페이지 운영 등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50% 이하로 나타나 인터넷 이용의 대부분이 여가, 소통, 정보획득 등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2).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해석할 때, 디지털 정보 활용의 목적과 범위가 디지털 정보를 다루는 활용 능력의 수준과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도 디지털 활용의 하위 영역 가운데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사회적 관계 서비스, 생활 서비스 등은 디지털 정보의 일반 활용의 영역으로 정의한 반면, 정보 생산 및 공유 활동,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 온라인 사회 참여 활동, 온라인 경제 활동 등은 디지털 정보 활용의 심화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IV-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 정보의 일반 활용에서는 90% 수준의 이용률을 보였지만, 심화 활용 영역에서는 38.9~72.4%의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정보취약계층의 경우에 더 심화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정보 탐색, 사회적 관계 맺음, 여가 및 기본 생활 서비스 이용 등 개인 생활 및 사회의 기본 생활 영위에 필요한 정도이기는 하나,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 직업, 정치, 사회생활에 보다 적극적 참여를 하는 데에는 다소 저조한 수준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V-34] 디지털 정보 활용 하위영역별 이용률, 2022



주: 1) '일반 국민'은 만 3세 이상 인구임. '정보취약계층'에는 장애인(전국 만 7~69세 등록장애인), 고령층(전국 가구의 만 55세 이상 가구원), 저소득층(전국 만 7~74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어민(전국 농어가의 만 15세 이상 농어업 종사자) 등을 포함.
 2) 각 통계치는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내 이용자) 중 인터넷을 활용해 해당 활동을 한 적이 있는 이용자의 비율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2.

디지털 정보에 대한 이해력과 태도

앞서 언급했듯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디지털 기기 및 기술의 직접 이용 및 활용과 관련된 능력 이외에도, 디지털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력 및 문식(文識)력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력과 디지털 기기 및 정보를 다루는 태도까지 포함하는 다층적 영역의 역량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디지털 기기·정보의 이용과 활용의 능력 이외에 디지털 정보에 대한 이해력과 태도의 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가 있다. 이 조사에서는 디지털 역량을 디지털 기술 이



용(기기 이용, 서비스 이용), 디지털 정보 이해(비판적 정보 이해, 미디어 이해), 디지털 안전(윤리, 보안), 디지털 태도(효능감, 조절) 등의 4개 영역과 8개의 하위차원¹⁾으로 구성되어 자기 보고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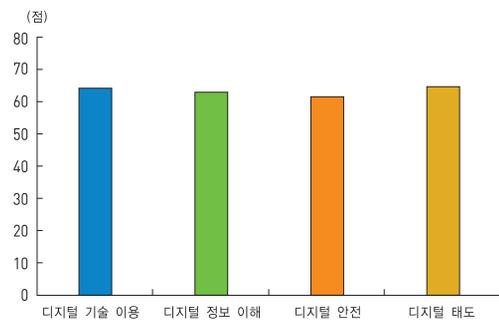
이 조사의 2021년 결과를 보면, 서울시민은 디지털 기술 이용 64.1점, 디지털 정보 이해 63.1점, 디지털 안전 61.5점, 디지털 태도 64.6점으로 전체적으로 60점대 수준을 보였다. 하위차원별로는 디지털 윤리 부문의 점수가 72.9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디지털 보안 능력 부문에서는 52.6점의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디지털 안전 영역에서의 하위차원 간 점수 차이가 20점으로 크게 나타났다(그림 IV-35).

디지털 윤리 영역이 ‘타인의 개인정보 사용 금지’, ‘인터넷에서 인신공격 및 비방 자제’, ‘제작물 출처 미 표기 주의’, ‘사실 미확인 정보 공유 자제’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보 예절 및 규범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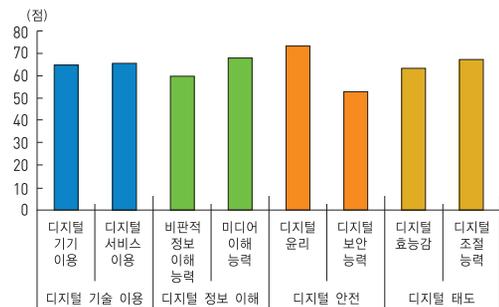
와 관련된 능력이라면, 디지털 보안 능력은 ‘출처 불명 메일 링크 삭제’, ‘OS 보안 프로그램 최신 버전 유지’, ‘악성코드 주기적 검사 치료’, ‘정기적 암호 변경’ 등 사이버 위험에 대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 적용의 능력으로 설명된다. 디지털 보안 능력이 정보 기술을 직접 사용

[그림 IV-35] 서울시민의 디지털 역량 수준, 2021

1) 영역별 수준



2) 하위차원별 수준



1) 각 하위차원이 의미하는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역	하위차원	상세 설명
디지털 기술 이용	디지털 기기 이용	디지털 기기 기본 조작 및 설정 능력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인터넷 정보검색, 상품구매, 금융거래 등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능력
디지털 정보 이해	비판적 정보 이해 능력	디지털 정보 사실여부, 정확도, 출처 등 비판적으로 분석, 판별, 이해하는 능력
	미디어 이해 능력	디지털 미디어 정보의 특성 및 전달 매체의 속성에 대한 이해능력
디지털 안전	디지털 윤리	온라인 공간에서 예절과 규범 준수, 책임감 있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
	디지털 보안 능력	사이버 위험에 대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
디지털 태도	디지털 효능감	디지털 기술 이용에 대한 자기효능감 인식과 디지털 기술을 대하는 자세
	디지털 조절 능력	디지털 이용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

주: 1) 서울 거주가구의 만 19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하위차원별 디지털 역량 수준은 ‘디지털 기기 이용’부터 ‘디지털 조절 능력’까지 8개 하위차원 관련 문항 각각에 대해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동일 하위차원 문항 점수들을 산술평균한 값으로서, 0~100점 사이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함.
 3) 영역별 디지털 역량 수준은 해당 하위차원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임.
 출처: 서울디지털재단, 「2021년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 2022.

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사이버 예절 및 관련 규범 준수와 관련된 디지털 윤리보다는 높은 수준의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36]에서 디지털 역량 영역의 연령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디지털 기술 이용의 경우 19~29세는 81.5점, 40~49세는 73.0점, 65~74세 및 75세 이상은 각각 37.4점, 23.5점으로, 연령집단 간 최고-최저의 점수 차이가 58.0점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디지털 안전 영역은 가장 높은 점수인 19~29세의 69.6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75세 이상의 44.3점까지 점수 차이가 25.3점이었다. 또한 디지털 정보 이해 영역도 19~29세 71.6점, 75세 이상이 38.4점으로 33.2점의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디지털 기기를 직접 이용하는 기술 능력 면에서는 매우 큰 역량 차이가 있지만,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서의 정보 문해력이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윤리적 태도 등의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역량 차이가 크지 않음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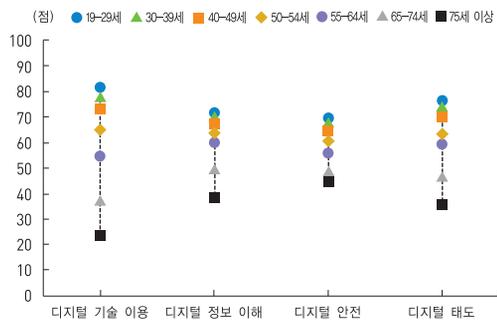
이러한 경향은 디지털 역량을 하위차원별로 보았을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림 IV-36-2]에서와 같이 디지털 윤리, 미디어 이해 능력, 비판적 정보 이해 능력 등에 비해 디지털 기기 이용, 디지털 서비스 이용, 디지털 보안 능력 등에서 연령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보안 능력은 전체 연령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나 다른 하위 역량보다도 높은 수준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요구되는 하

위 역량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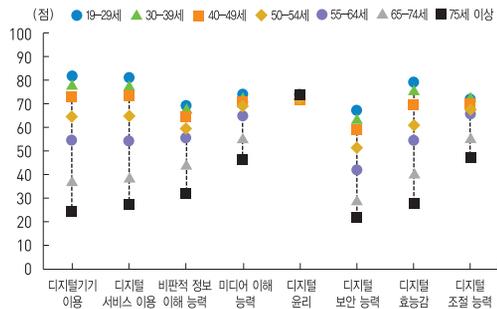
이상의 디지털 정보 접근, 활용, 이해, 태도와 관련된 역량의 수준에 대한 정보는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 분석 시 해당 역량의 다양한 영역과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육 및 지원 방안 설계 시

[그림 IV-36] 서울시민의 연령별 디지털 역량 수준, 2021

1) 영역별 수준



2) 하위차원별 수준



주: 1) 서울 거주가구의 만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2) 하위차원별 디지털 역량 수준은 '디지털 기기 이용'부터 '디지털 조절 능력'까지 8개 하위차원 관련 문항 각각에 대해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동일 하위차원 문항 점수들을 산술평균한 값으로서, 0~100점 사이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함.
 3) 영역별 디지털 역량 수준은 해당 하위차원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임.
 출처: 서울디지털재단, 「2021년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 2022.



대상자 특성에 따라 관심을 가져야 할 역량의 영역과 수준을 차별화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경험 및 희망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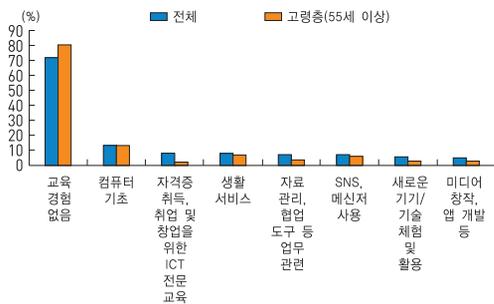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디지털 리터러시의 현황과 수준은 관련 교육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현재 디지털 정보 관련 교육 참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관련 교육에의 참여 의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가용 자료로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에서 서울시민의 디지털 정보 관련 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IV-37]에 제시된 202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정보기술 교육 수강 경험에 대해

72.0%는 수강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상당수가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참여 경험 없음이 80.3%로 더 높게 나타났다.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컴퓨터 기초(13.2%)’, ‘자격증 취득, 취업 및 창업을 위한 ICT 전문교육(8.2%)’, ‘생활 서비스(7.8%)’, ‘자료관리, 협업 도구 등 업무 관련(7.1%)’, ‘SNS, 메신저 사용(7.0%)’, ‘새로운 기기/기술 체험 및 활용(5.8%)’, ‘미디어 창작, 앱 개발 등(5.0%)’ 등의 순으로 수강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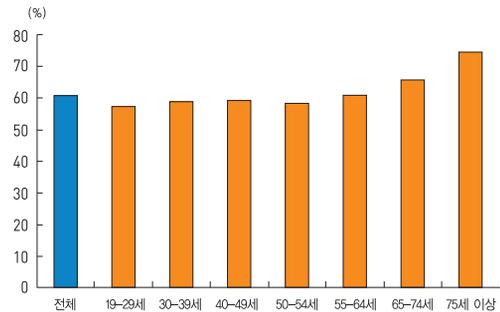
또한 [그림 IV-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관련 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60.8%로 나타나, 현재의 낮은 교육 참여율과 함께 앞으로의 교육 참여에 대한 의사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그림 IV-37] 서울시민의 디지털 정보기술 교육 경험, 2021



주: 1) 서울 거주가구의 만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전체 응답자 중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해당 정보기술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서울디지털재단, 「2021년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 2022.

[그림 IV-38] 서울시민의 연령별 향후 디지털 정보기술 교육 미참여 의향, 2021



주: 1) 서울 거주가구의 만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전체 응답자 중 향후 정보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 교육을 원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서울디지털재단, 「2021년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 2022.

19~29세는 57.2%, 30~39세는 59.1%, 40~49세는 59.3%, 50~54세는 58.2%, 55세 이상의 중·고령층은 65.1%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향후 교육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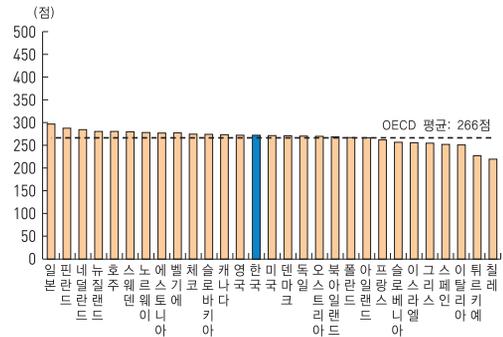
디지털 리터러시 국제 비교

그렇다면 타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는 OECD가 주관하고 있는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는 여타의 조사와 달리 수행 능력 기반의 조사 방식을 취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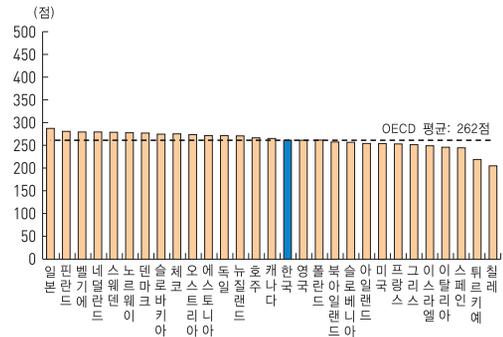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는 참가국 성인(16~65세)의 문해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의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컴퓨터 기반의 문제해결능력(problem solving in technology-rich environment)에서 컴퓨터 관련 기기 및 프로그램 작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력을 조사하고 있다. 타 능력과 다르게 컴퓨터 기반의 문제해결능력에서는 수준별 인구 비율의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정보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에 익숙한 성인의 비율과 근로자, 시민, 소비자로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ICT 기술 수준의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설명한다. 수준 등급은 1수준 이하부터

[그림 IV-39] OECD 국가 성인의 문해력, 수리력 및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능력 평가 결과(PIACC 조사 결과),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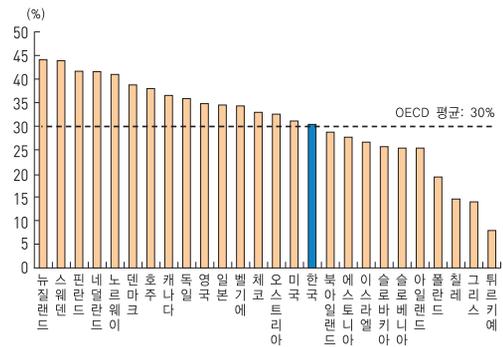
1) 문해력



2) 수리력



3)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능력



- 주: 1) 각국 16~65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 2) 문해력과 수리력은 평균 점수,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능력은 전체 4개 등급 가운데 상위 2개 등급(2,3수준)이 차지하는 비율임.
- 3)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능력을 조사하지 않았음.

출처: OECD, Skills Matter: Further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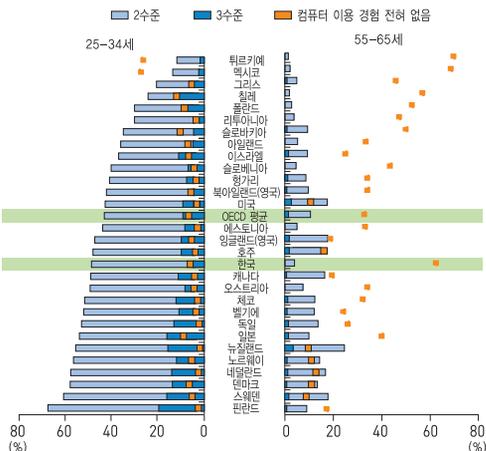


3수준까지 총 4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림 IV-39]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문해력의 경우에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가 많은 반면, 컴퓨터 기반의 문제해결능력의 경우에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 수가 많지 않아 해당 역량의 국가 간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의 문해력과 수리력은 각각 273점, 263점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컴퓨터 기반의 문제해결능력은 상위 2개 등급(2수준 및 3수준)의 인구가 30%로 OECD 평균과 유사했다.

조사 참여국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컴퓨터 기반의 문제해결능력의 수준이 낮았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 그 격차가 큰 편에 속했다. [그림 IV-40]를 보면 OECD 평균의 경우, 25~34세

[그림 IV-40] OECD 국가 성인의 연령별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능력 수준, 2018



주: 1) 각국 16~65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OECD, Skills Matter: Further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2019.

에서 상위 2개 수준 능력에 포함되는 경우는 43.1%이고, 55~65세에서는 2수준이 9.1%, 3수준이 1.2%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25~34세에서 상위 2개 수준의 능력에 포함되는 경우는 48.6%로 OECD 평균을 상회했지만, 55~65세에서는 2수준이 3.9%, 3수준은 없었으며, 컴퓨터 경험이 전혀 없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63.5%로 연령집단 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맺음말

이상의 내용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으나 관련 기기의 이용 능력 면에서는 격차가 크다는 점, 그리고 경제, 직업, 사회생활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활용이 부족하다는 점 등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사회적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 미흡한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디지털 기기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연령집단 간 격차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영역 및 수준별로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훈련의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디지털 리터러시의 연령집단 간 격차 상황을 고려하여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된 서비스와 교육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고령층이 교육

기회 접근에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령 친화적인 디지털 기술력 및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이 글에서 제시된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조사들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특정 영역과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 역량들을 정의하고, 이를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을 두어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량 정보로서는 다소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다층적 영역과 수준을 밝힐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 기반한 국가 승인통계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역량으로서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수행 능력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조사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길혜지·노일경. 2019. “성인 정보문해능력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정보문해 영역 및 수준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25(4). 1-24.
- Ferrari, A. 2013. DIGCOMP: A Framework for Developing and Understanding Digital Competence in Europ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doi:10.2788/52966.
- UNESCO. 2018. A Global Framework of Reference on Digital Literacy Skills for Indicator 4.4.2. Information Paper No. 51. UIS/2018/ICT/IP/51. <http://uis.unesco.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p51-global-framework-reference-digital-literacy-skills-2018-en.pdf>.